

연변 로인 버스 무료 카드 왜 현·시간 통용할 수 없나?

—본사기자 연변·장춘·길림 지역의 로인무료승차카드 정책 알아보기



연변일보사 버스정류소에서 시민들이 질서 있게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길에서 모아산까지는 무료인데 모아산에서 룡정으로 갈 때는 왜 돈을 내야 하오?”

최근, 본지는 연길시의 한 로인 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보 한통을 받았다. 연길에 거주하는 이 로인은 연길시에서 발급받은 로인무료승차카드(아래 ‘로인카드’)로 모아산까지는 버스로 아무 문제 없이 이동했지만 모아산에서 룡정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자 해당 로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로인은 연변조선족자치주내에서 같은 용도의 로인카드임에도 연길시와 룡정시에서 서로 통용할 수 없는 상황에 리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로인들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연변 여러 현, 시의 로인 우대 교통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사는 직접 현장 취재에 나섰다.

■ 왜 다른 현, 시에서는 쓸 수 없나?—지방재정 운영 방식의 차이

첫째,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지방재정지출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둘째, 호적이나 거주증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부정 사용 및 도용을 방지한다. 셋째,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로인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의 편의성과 자원 분배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연변 내 어느 현, 시도 현재로서는 다른 현, 시와의 통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연변 여러 현, 시별 로인 버스 우대 정책 현황

기사는 연변 여러 현, 시의 관련 부문 및 버스회사에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정리했다.

연길시: 65세 이상 로인을 대상으로 여성에게는 ‘석양홍카드’, 남성에게는 ‘로인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이 카드는 매달 50회 한도내에서 12개월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미사용 회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연길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도합 6만 5,337장의 로인카드를 발급했다. 로인카드가 필요한 65세 이상 로인들은 본인의 1촌 사진, 호구부, 신분증을 지참하고 연길시버스그룹유한회사 버스카드 발급 지정 지점에서 신청해 수령 가능하며 외지 호적자는 거주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연길시 농촌지역(의란진·소영진·삼도만진·조양천진)에 립시 거주하는 로인은 립시거주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카드는 인당 한장으로 제한된다.

안도현: 65세 이상으로 안도에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안도현정무대청에서 로인카드를 발급한다. 단, 개인 운영 버스는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룡시: 65세 이상으로 화룡에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통계 및 심사를 거쳐 인당 연간 100원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돈화시: 65세 이상으로 돈화에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인당 연간 60원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왕청현: 65세 이상으로 왕청에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로인버스카드를 발급한다.

룡정시: 65세 이상으로 룡정에 호적이 있는 로인을 대상으로 종이무료승차권을 발급한다. 룡정시민정국 관련 부문에 따르면 2025년 룡정시에서는 매 한명의 로인당 1년에 60장씩 도합 86만 3,427장의 무료승차권을 배부했다. 운영은 룡정시연변연통도시간버스유한회사와 룡정시통달버스유한책임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룡정—모아산 구간을 운행하는 5호선 버스는 하루 56회 운행되고 배차 간격은 25분이며 현금 요금은 2원이지만 무료승차권을 소지한 로인은 부담 없이 모아산을 오갈 수 있다.

■ 장춘시: 시내에서만 통용 가능

기자가 장춘대중교통그룹유한회사에서 알아본 결과 장춘시의 버스교통카드 관련 업무는 길림성통카지불주

식유한회사(吉林省通卡支付股份有限公司)에서 일괄 취급한다.

길림성통카지불주식유한회사에 따르면 현재 장춘시 로인카드는 장춘 시내 65세 및 그 이상 로인들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즉 조양구, 관성구, 남관구, 이도구, 룡원구 등 5개 구와 장춘경제기술개발구, 장춘정월고신기술산업개발구, 장춘자동자경제기술개발구, 장춘신구, 장춘련화산생태관광휴가구,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 등 6개 개발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쌍양구, 구태구, 덕혜시, 농안현, 유수시와 공주령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길림시: 카드 종류에 따라 통용 범위 달라

길림시의 경우, 버스교통카드는 ‘호련호통카드’(互联互通卡)와 ‘본지카드’(本地卡) 두 종류로 구분된다. ‘호련호통카드’는 일련번호 3104로 시작하며 길림 시내외 서산시·화전시에서도 통용 가능하다. 교하시·반석시·영길현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카드’는 일련번호 132로 시작하며 장춘시와 길림시에서만 통용되고 기타 주변 도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현장의 목소리: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길림로인권익보장조례> 제 46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로인은 도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리용할 수 있다. 실시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혜택의 내용과 범위가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로인들은 대체로 이동권 보장과 복지 혜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감을 드러냈다.

모아산 버스정류소에서 만난 김씨 로인은 “룡정시에서 종이승차권을 나눠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오. 모아산에 오고 싶을 때마다 부담 없이 탈 수 있어서 기쁘오.”라고 말했다.

연변일보사 버스정류소에서 만난 강씨 로인은 “로인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로 시내 어디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어 아주 좋소. 아침에 공원에 가고 오후에 학교에 손주 데리러도 가고 교통비가 들지 않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소. 이게 다 당과 정부에서 배려해준 덕분이요.”라며 흡족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유경봉 리전 김명준 차영국 기자



길림성 결혼·출산·육아·간호 휴가 정책 알아본다

길림성의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간호휴가 관련 규정을 상세히 정리했다.

급여의 75%로 지급된다. 급여 조정, 직급 승진, 근무년한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혼휴가
결혼휴가는 15일이다. <길림성 인구및계획출산조례> 제 42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 등록 절차를 마친 종업원은 15일의 결혼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158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가능하다. <길림성인구및계획출산조례>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98일의 출산휴가에 더해 정책에 따라 출산한 여성종업원은 출산휴가를 18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남성종업원의 간호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종업원은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출산휴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 연장 기간의 급여는 원래

육아휴가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쌍방은 각각 매년 20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벽하고 시달할 데 관한 길림성의 실시의견>에 따르면 법률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인당 연간 20일의 육아휴가를 누릴 수 있다.

간병휴가
외동자녀는 15일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벽하고 시달할 데 관한 길림성의 실시의견>에 따르면 외동자녀의 부모가 만 60세가 넘어 병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는 매년 최대 15일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안도현

11개 팀 동원해 배수로 257키로미터 정비



안도현에서는 봄철 도로 유지보수의 ‘황금기’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도로포장 손상, 주변 환경, 안전시설 등을 중점으로 정밀한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 통행 품질을 높여 군중들의 출행 안전을 튼튼히 지키고 있다.

S201 성급 간선도로 수동선 구간에서 유지보수일군들이 기존 상층 시기를 리용해 도로 표면의 구멍이, 균열 등 손상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었다. 기계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안도현교통운수국 종합보장중심 유지보수과 과장 류홍림은 “3월 12일부터 시공을 시작하여 현재 도로 균열 보수, 길가 경사면 정비, 교량 및 배수로 준설 등 주요 작업을 완료 했다. 4월말까지 봄철 도로 상태 회복 작업을 전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봄철 유지보수 작업은 ‘조기 배치, 신속 처리, 전면 적용’을 원칙으로 현내 국도와 성도, 농촌도로, 고속도로 연결선 등 주요 구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도보+차량 순찰’ 방식을 도입해 구멍이 보수, 격리장벽 정비, 파형 방호벽 복구, 배수로 쓰레기 정리 등을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제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도현은 도합 11개의 유지보수팀을 투입하여 도로 균열 보수 41만 3,161연장미터, 아스팔트 구멍이 보수 1,324평방미터, 격리장벽 1곳 정비, 파형 방호벽 50연장미터 복구, 배수로 257키로미터 정리 및 정비를 완료했다. /리전기자



길림대학제 2병원 국내 최초 로봇시력 교정 기술 도입

최근 세계를 선도하는 굴절수술 장비인 칼자이스의 신형 로봇도 전비초 VISUMAX800과 새로운 미세 절개수술 SMILEpro가 길림대학제 2병원에 설치, 정식 립상에 투입됐다.

이 병원은 전국 최초로 해당 기술을 도입한 의료기관으로 이는 우리 성의 근시 교정 기술이 ‘초고속, 스마트형, 더욱 안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길림일보

돈화시장애인연합회

장애인 가정에 무장애 개조 실시

돈화시장애인연합회에서는 중증 장애인 가정의 출행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97가구의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2026년 무장애 개조 사업을 가동했다.

료해 따르면 돈화시장애인연합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장애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체, 시각, 청각 등 중증 장애인 가정의 실제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출입구, 창문, 손잡이, 화장실 운수기, 낮은 높이의 조리대 등 개조 필요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다. 또한 가정의 경제 사정, 주거 조건, 개조 의향과 특수 요구 사항도 세심하게 파악하여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수요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한 가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돈화시장애인연합회는 97가구의 중증 장애인

가정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수요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향후 정밀한 개조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돈화시장애인연합회 관련 책임자는 “무장애 개조는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민생 조치로서 가정별 맞춤형 접근과 정밀한 적합성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일률적 대응’을 근절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개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중들의 감독하에 무장애 개조 전 과정이 공평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실질적인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리전기자

